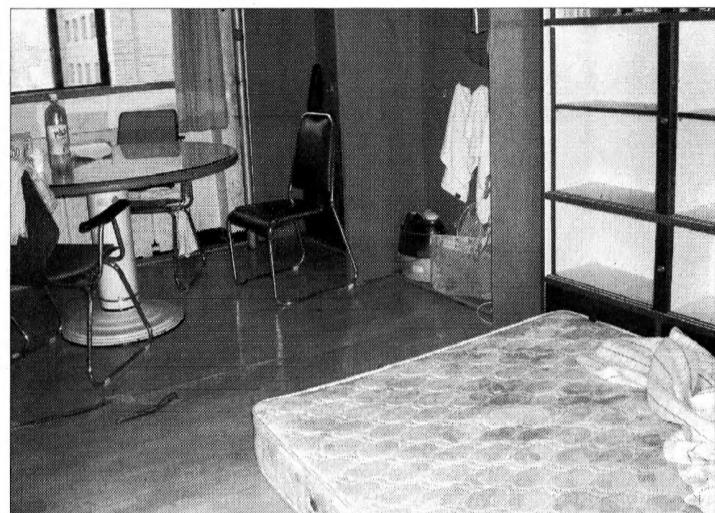


단과대 과제 독서실 관리 미비로 '눈살'

활용 안돼 방치 … 자연대 · 사범대는 운영 잘 돼



정리정돈이 안된 공과대 과제독서실

단과대 · 학과별로 미련 돼 있는 과제독서실 중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독서실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부터 기술고시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공과대학

에서 운영했던 녹천재 기술고시실이 없어지면서 그 후 공과대학 전체 과제독서실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과제독서실은 이전 고시실에서 쓰여었던 물품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심지어 침대마

트리스까지 그대로 놓여져 있어 잠만 자고 가는 학생들 또한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해 공과대학 행정실 관계자는 "중앙도서관처럼 자리정리를 하지 않는다"며 "24시간 개방해 놓기 때문에 과제독서실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전체가 쓸 수 있어야 하는 독서실인데 한 과만 집중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개인독서실처럼 이용하니깐 미땅히 들어가서 공부할 자리가 없다"며 "또 독서실 안에 웃이나 개인용품들이 방치돼 있어 불쾌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과제독서실인 곳도 있었다. 해양과학대학 1호관에 있는 과제독서실의 경우 뜻말만 과제독서실이라고 적혀있

을 뿐 현재 해양산업공학전공 과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양산업공학전공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제독서실을 소홀하게 사용하다보니깐 과방으로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해양학과 과방이 과제독서실로 해양과학대학 안내도에 잘못 표기돼 있었다.

반면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의 경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과제독서실 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학생회 홈페이지 또는 학생회실에 찾아와주라는 안내문이 과제독서실 문 앞에 게시돼 있다.

이와 함께 사범대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리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자리점검을 하며 매주 월요일에는 정기자리점검을 하고 있다.

김화영 기자 kimhy@chej.ac.kr

대학 시설물

사용료 지침 제정

대학 강의실, 세미나실, 전산실, 체육관 등 대학 시설물에 대해 요금을 받는다.

제주대는 11일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공공요금 부담에 대비, 건전재정 마련을 위해 대학시설물 사용료 징수 지침을 마련,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의실 이용료는 4시간 기준 25원, 세미나실 · 전산실 · 어학실습실 3만원, 중강당 5만원, 체육관은 15만원을 받게 된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 시설물을 의부인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단과대학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물 사용료 징수업무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능희 동문 19일 독창회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독창회 피아노 연주는 제주출신 피아니스트 신희은씨가 맡아 자리를 빛낸다.

공연 작품은 '집시' '집시의 노래' '나는 이제 멀리 떠나야 해' '달의 노래' 외 3곡이다.

한편 오능희씨는 음악과 92학번으로 졸업하고 현재 음악과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2006년도 우수 공무원' 선발

제주대가 '2006년도 제주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

올해 제주대를 빛낸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고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이번 선발은 4급 이하의 일반직 · 연구직 · 별정직 · 기능

직 · 기성직을 선발대상으로 한다. 제안 · 청안, 우수혁신, 친절봉사, 발전기금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선발될 8명은 총 장표창과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추천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모의 토의 및 경시대회 29일 개최

'모의 토의 및 경시대회'가 외국어교육관 주최로 오는 29일 외국어교육관에서 열린다.

모의 토의은 제주대 학생 및 일반인 2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경시대회는 우수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조교 균평 '복수평가제' 실시

이달부터 단과대학 조교나 총장 직속 부속시설 조교들은 학부(과)장과 학장 또는 부속 시설의 장과 대학원장으로부터 평가받게 된다.

제주대학교는 조교 균무실적 평가 시행세칙(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종전 학부(과)장과 부속시설 장 외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학장 또는 대학원장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복수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업무 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조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균무자세 · 추진실적 · 학생지도 ·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며, 학부(과) 및 부속시설의 평가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치등평가가 이뤄진다.

대학은 이같은 방식의 균무성적 평가 결과를 성과급여 보조비 지급 때 반영할 계획이다.

사범대 '방과후 학교' 참여

사범대학 학생들이 도내 중 ·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대와 체결한 교류협약에 따라 도내 4개 중 ·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사범대학 학생 16명을 지도교사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예비교사들은 오는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방과 후 학교에서 수준별 교육활동,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특별보충과정 지도교사 그룹 등을 운영하게 된다.

미술학과 93학번 동기 전시회

미술학과 93학번 동기 전시회는 13~17일 학생문화원에서 '10년 전 악속 전시회'를 연다.

조소를 전공한 이들은 10년

후 전시회를 함께 열고 기약해 지난 2004년 10월 처음으로 '10년 전 악속 전시회'를 열고 올해 2번째 전시회를 갖게 됐다.

식품영양학과, 일본 조리전문대와 교류

식품영양학과(학과장 신동범 교수)와 일본 요리 시연회에서는 스시, 다코야끼, 찹쌀떡이 등을 만들어 한 · 일 대학생들끼리 식문화를 교류했다.

윤창훈교수(식품영양)는 "2년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번에 2번째 열리는 행사"라며 "학생들이 서로 음식문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과대 축제 개막

홍향제 13일 · 파랑제 20일

뜨거운 여름 방학을 달군 학생들의 열정어린 노력이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실을 맺는다.

제주대가 오늘 종어중문학과에서 주최하는 '홍향제'를 시작으로 학내 곳곳에서 단과대 축제를 연다.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종어중문학과의 '홍향제'는 첫째날 △고사 및 길트기 △중국어발하기대회 △고사상어대회 및 중국물품 판매 · 전시를 진행하고 둘째날 법정 대 중강당에서 △중문가상 △성우 따라잡기(타잔) △원어연극(영화인 그녀) 등을 선보인다.

첫날 열리는 '제11회 전도 초 · 중 · 고등학생 중국어발하기대회'는 중국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모아 학생들이 그동안 간고 닦은 실력을 겨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주제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지난달 26일 예선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중국어 말하기를 겨루게 된다.

김수진 기자 sujin0104@chej.ac.kr

언론출판센터 신간 출판 '속속'

'의 · 생명과학의 법 · 윤리적 이해' 등 4권

언론출판센터(주간 이첨익 일어일문학 교수)가 '의 · 생명과학의 법 · 윤리적 이해',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산수미학탐구', '실용영문법해설(1)'을 발간했다.

손영수(의학과) 교수와 김향미(소설예방법학연구소) 소장이 공저한 '의 · 생명과학의 법 · 윤리적 이해'는 의 · 생명과학분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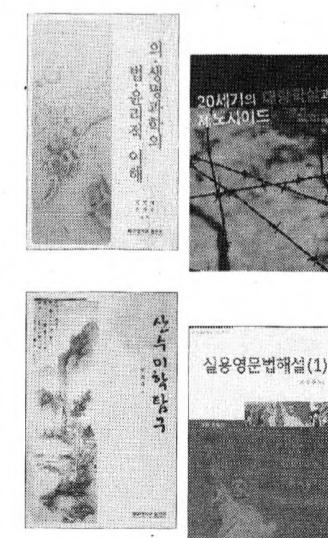
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장란, 줄기세포 및 유전체 연구, 인공수태술, 인공임신증절, 장기이식, 인간생체실험, 임종과 안락사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 · 생명과학분야인 만큼 이에 따른 법 · 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경환(영어영문) 교수가 개정증보한 '실용영문법해설(1)'은 영어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

어 활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책은 개정 증보판인 만큼 내용을 보강해 독자들의 영어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정선희 기자 sun@chej.ac.kr



장원석(정치외교) 교수와 허준호(평화연구소) 연구원이 옮겨 새롭게 출판됐다.

이 책은 지은이 벨라벤티노가 '대규모 비전투원들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이라고 정의한 대량학살을 제주 4 · 3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오규(국어교육) 교수는 저서한 '산수미학탐구'는 산수문학의 기본 개념과 시기이론의 핵심적인 문제를 주제로 이론체계를 시도했다. 산수시가의 미학적 연구를 통해 시기미학이론을 탐구하고 고전시기이론의 개념을 분석해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검증을 했다.

고경환(영어영문) 교수는 개정증보한 '실용영문법해설(1)'은 영어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 캠퍼스

11일 총여학생회, 제1회 아라여성축제 개최



멋진 남자·멋진 여자 콘테스트'에서 출연 학생이 끼를 뽑고 있다.

제1회 아라여성축제 'Happy Together'가 총여학생회(회장 조소영)가 주최로 지난 11일 한리터를 중심으로 열렸다.

남성과 여성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 이번 축제는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회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해피레이디 피구대회'를 시작으로 성교유 강좌, O·X 퀴즈대회, 멋진 남자·멋진 여자 콘테스트, 월경찾집, 네일아트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졌다.

특히 '性(성)'을 주제로 한 성교육 강좌와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 캠퍼스' 등 올바른 성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는 학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성교유

강좌는 구성애(아우성 소장)씨를 초청해 '그 남자, 그 여자의 성 이야기'라는 주제로 솔직담백한 강의를 펼쳤다. 이번 강의는 법정대중강당 약 300석을 가득 메우고 자리가 모자리는 등 남·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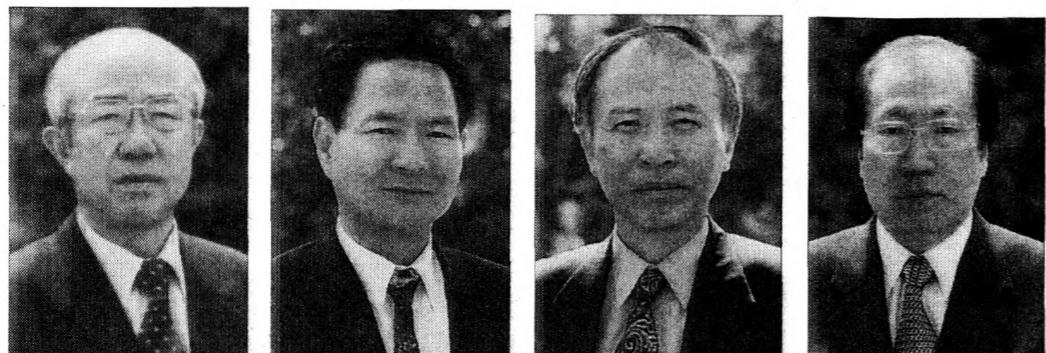
또한 건강증진센터(소장 김문우) 학과 교수(교수) 성희룡·성폭력 상담실에서는 '함께 만들어요! 양성평등 캠퍼스'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생리대와 티슈, 호신용, 호르몬 약 500개, 콘돔 약 1000개 등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콘돔을 나눠 준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 외에 생리주기표를 나눠주거나 성희롱·성폭력·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건강증진센터 조미경(간호사)씨는 "학생들에게 성은 이론보다 실전으로 접해보는 것이 더 좋아 콘돔도 나눠주고 언제 모형도 접하게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성에 대해 개방적이기 보다는 보수적이고 감추려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사내용은 좋았지만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축제가 개최돼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점과 안내책자가 지나치게 상업적인 점 등은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

고재건·유장걸·김희석·오윤근 교수 정년퇴임



좌로부터 고재건, 유장걸, 김희석, 오윤근 교수 사진

교육공무원 정년퇴임식 행사가 지난달 31일 제주대 법정대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년퇴임하는 교수는 고재건(경영학과), 유장걸(생명공학부), 김희석(수의학과), 오윤근(해양학부) 교수로 총 4명이다.

고재건 교수는 서울대 양정고와 서율대를 졸업한 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 1980년부터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제주대와 인연을 맺었다. 조교수, 부교수 및 교수로 20여년 재직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연구소장, 경영학과장, 경영대학원장, 대학원 위원회 위원, 대학 평의회 평의원 등 학내외보직을 역임했다.

유장걸 교수는 서울대 농과대학 농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농화학과에서 농화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부터 제주대와 인연을 맺어 30여년을 재직하여 한

동안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며 교과과정위원회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일반정계위원회 위원, 수의학과장, 부설 동물병원장,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연구원 등 학내보직을 거쳤다.

김희석 교수는 제주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경국대 대학원에서 농화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13년

1987년도부터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1993년 동안 제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교무처장, 환경연구소장, 한국환경과학회·한국영향평가학회 부학회장, 환경관련 11개 학회 칭집회원, 평의원 이사를 역임했다.

김수진 기자 sujin0104@cheju.ac.kr

체육학부, 서울올림픽 기념 성화봉송로 자전거 일주



'88 서울올림픽 제18주년 기념 성화봉송로 자전거 일주'가 체육학부 주관으로 지난 7일~8일 이틀간 도내 일원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체육관을 출발해 1박 2일간의 일정 동안 하귀, 중문, 표선 등을 거쳐 신산공원에 도착해 폐회식을 가졌다.

88올림픽의 상화 첫 기착기로서의 지금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열린 이번 행사는 체육학부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

데 이뤄졌다.

류체정(체육학부) 교수는 개회사에서 "이 행사가 체육학부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학교 나아가 우리고장의 행사로 발전해 제주 체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학과는 서울 올림픽부터 매년 해마다 성화봉송로 자전거 도내 일주를 실시하고 있다.

김자은 기자 jieun3412@cheju.ac.kr

신임 의과대 학장 인터뷰 이창현 교수



이창현(의학과) 교수
의과대학 이창현(의학과) 교수는 제6대 의과대학장에 당선됐다.

지난달 9일 치러진 의과대학 장선거에서 유권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현 교수는 37표(53%)를 획득했다.

- 취임소감
먼저 의과대학장에 당선돼 영광이다. 할 일이 많아 책임감이 크고 어깨가 무겁다.

- 임기 중 추진할 사업
현재 의학교과정을 검토·보완해 올해 말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이 기 때문에 중요한

시안으로 보고 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 정착을 위해 건물 착공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내·외 대학 중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 한다. 좋은 점은 벤치마킹하고 교수님들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교류대학에서 교과목을 받는 일렉트 코스를 접목시키는 등 대학간 교류를 활발히 할 계획이다.

남에게 베풀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는 의사가 지녀야 할 덕목 중 하나이다. 현재 몇 개의 교과목이 있지만 인문사회학학과를 통합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참된 인성을 갖추기 위한 연속 특강 등 방법을 계획할 것이다.

공부만 잘하기보다는 기본 됨됨이를 갖출 수 있는 교육에 더욱 신경 쓸 것이다. 아직도 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의학전문대학원 추진
2008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므로 건물 착공이 시급하다. 의과대학 건물이 비좁아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제주대병원에 있는 민족 건물을 빨리 준공

해 의학전문대학원 체재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08년 완공될 예정인 제주대병원도 시일을 앞당겼으면 한다. 제주대병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이 같이 가야 할 것

이다. 의과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우리보다 먼저 전환된 대학에 있었던 최초나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의과대학을 비교해 보면 의료문제에 있어서 진료, 학생 수준 등을 비교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보완해야 할 것은 있다.

-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후발주자로 제주대 의과대학이 나서긴 했으나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도와주고 노력한 탓에 자리리를 잡았다. 아직도 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의과대학이 한층 발전하기 위해 학장실을 항상 열어둘 것이다. 문을 열고 몸과 마음을 열어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

신임 경영사업단장 인터뷰 홍성철 교수

발전기금 조성 사업에 총력



홍성철(의학과) 교수

- 취임 소감
경영사업단은 기성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의 일들을 담당하는 곳이다.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편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경영사업단의 역할
경영사업단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곳임과 동시에 조성된 발전기금을 잘 활용해 나가는 곳이다. 제주대 발전기금은 사업형발전기금, 목적형발전기금, 소액발전기금이 있고 기부자가 제시한 목적에 따라 활용한다. 사업형발전기금은 박물관·문

화관·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재일본제주인센터 건립기금으로 쓰이며 목적형발전기금은 교육·연구 부분에 목적을 특정 기부하는 기금으로 특정 교수와 학과 및 대학에 기부할 수 있다.

소액발전기금은 이미트, 농협하나로마트의 이용료와 포인트가 0.5%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일 수 있다. 또 제주시립체크카드의 이용료 중 포인트가 자동적으로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들어온다.

- 마지막 당부의 말
제주대의 발전이 나아가 제주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 동문, 도민 더 나아가 제주도가 고학인 분들의 지원을 통해 학교발전 뿐만 아니라 인재양성, 더 나아가 제주의 새로운 발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대학생이 약 1만 명인데 소액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을 뒤 학생들의 조그만 모금으로 이해 제주대학의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또 제주대 발전후원의 집을 이용해 제주대 발전기금 혜택을 더욱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강은정 기자 kangej@cheju.ac.kr

'WISE IT-멘토링 워크샵' 8일 열려

WISE 프로그램 제주지역센터 개최

IT 분야의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WISE IT-멘토링 워크샵'이 지난 8일 국제교류회관에서 개최됐다.

WISE 프로그램 제주지역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워크샵은 이공계 전문직 진출을 어려워하는 이공계여 학생들을 위해 IT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선배들을 초빙해 진로선택 및 취업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경순(애월중학교 교사) 'IT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활동 분야' ▲안연주(NCSort 과장) '면접을 볼 때 필요한 기본 사항' ▲정윤경(다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개발팀 사원) 'IT 진로와 취업' ▲오세진(광주과학기술원 박사과정) 'Who knows NEXT' ▲양정혜(LG CNS 기술서비스부문S/W 아키텍처팀 대리) '여성 IT피워'에 대한 강연과 선배와의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선배와의 멘토링 시간에는 자기 관심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YES와 NO를 확실하게 대답하라", "회사의 특성과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지 정확하게 파악하

고 가라", "자신을 PR할 수 있는 미니홈피를 만들어라", "모르는 것을 실물로 아는 척 하지 마라",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대답하라" 등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와 당부가 제시됐다.

송왕철(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여성 학생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지만 이미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다"며 "전공을 살려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ujin0104@cheju.ac.kr

◇ 누리사업 어떻게 되고 있나?

(5) 제주문화콘텐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

제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경영학과 · 사학과 등 8개 학과 참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부터 추진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이 진행중인 가운데 본지는 5차례에 걸쳐 제주대 5개 사업단을 점검한다.

대형사업인 '아열대 생물산업 및 친환경 농업생명산업 인력양성 사업단'을 시작으로 '친환경 해양산업 뉴프론티어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단',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사업단', '제주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순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누리사업은 지방대학 혁신 강화를 통해 우수인력을 배출하고 나아가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제주문화콘텐츠양성사업단(단장 전성수 산업디자인학부 교수)은

'전문인력양성체계 구축', '취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사업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제주문화콘텐츠양성사업단은 경영학과, 사학과, 가정관리학과 등 8개 학과 약 1040명 학생들이 소속돼 있다.

◆ 인재양성 사업

제주지역의 미래 전략 사업인 문화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때문에 제주문화콘텐츠사업단은 문화콘텐츠 관련 연계전공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문화교류, 생태문화콘텐츠 아카데미 등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가운데 연계전공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28개 연계전공이 신설돼 있으며 소속 학생들은 39학점을 이수할 경우 '문화콘텐츠 학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특히, 연계전공의 핵심인 협동프로젝트 수업은 참여 학생들이 팀을 구성 각 지도교수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교육과정이다. 지난 학기에는 100명의 학생과 18명의 지도교수가 24개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성과물을

'2006 제주문화콘텐츠 페스티벌'에 전시하기도 했다.

문화콘텐츠 누리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협동프로젝트 성과물을

각종 공모전과 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실적들이 있다"며 "그만큼 협동 프로젝트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특화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2학기 협동프로젝트에는 66명의 학생과 16명의 지도교수가 14개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협동프로젝트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신효주(사학과 2) 학생은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협동프로젝트에 참여해 잠재된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며 "제주의 숨겨진 문화 원형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취업 경쟁력 강화

요즘 '바늘구에 실 꿰기'만큼 어려운 것이 취업문 통과다. 따라서 제주문화콘텐츠사업단은 소속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학년도에 약 45명의 학생들이 22개의 산업체에서 2주~2달간 산학협동 문화콘텐츠 현장실습

을 했다.

또 지난 2005년 11월 26일부터 이를간 날을 휴트니스티문에서 성공적인 취업전략 교육을 위한 취업 캠프를 진행했다. 약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과 시테크 전략, 창조적 인간관계 등 취업을 대비한 생애능력 향상을 실시했다.

또한 '취업과 직업의 세계'라는

과목을 계절학기에 신설해 운영하고 통합적인 취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문화콘텐츠사업단의 관계자는 "요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취업은 모든 학생들의 고민인 만큼 누리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은 실무경험을 중요시하는 현장실습 및 현장 적응력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콘텐츠 비전과 방향



문화콘텐츠사업단이 지난 5월 23일부터 이틀간 제주대 체육관에서 '2006 제주문화콘텐츠 페스티벌'을 열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국가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를 브랜드화하고 산업화 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제주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면 문화콘텐츠를 비롯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하는데 가지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 자원을 보존, 발굴해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제작해 비지니스화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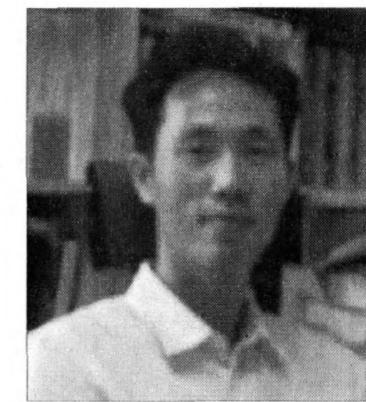
김성백(컴퓨터 교육과) 부단장은 "사업단에서 제주문화콘텐츠를 담당할 핵심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그래서 제주문화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실 기자 oheunsil@cheju.ac.kr

◇ 인터뷰 - 김성백(컴퓨터 교육과) 부단장

양질의 취업 위해 최선

3단계 로드맵 따라 사업 진행



- 학생들의 취업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지원 방안은

누리 사업의 성공을 가능하기 위한 핵심 지표 중의 하나가 취업률의 제고이다. 문화콘텐츠 사업단은 1학년도 여려 가지 취업 촉진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 정량적 목표로 설정한 취업률을 초과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정성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취업은 전제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이번년도에도 1학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산학 공동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업 등이니 운영 및 창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 현재 누리사업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기존 사업단에 비해 1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1년 빨리 시작한 타 사업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하고 우수인재유치 등에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문화콘텐츠 누리사업단은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나 전공이 여러 단과 대학에 흩어져 있다.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과간 유대관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계 전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구성이 특정 학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해 조언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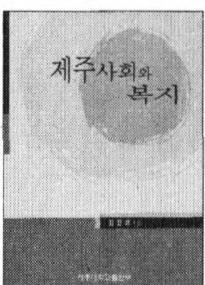
누리 사업은 학부생들을 위한 사업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 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누리 사업에 참여해 남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문화콘텐츠 누리사업단에서는 구체적인 누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항상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단 홈페이지를 늘 접근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각 사업에 최대한 참여했으면 한다. 제주의 미래는 문화 산업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분야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기를 바란다.

오은실 기자 oheunsil@cheju.ac.kr

출판부 신간 도서 안내

제주사회와 복지



김진영 저

2006/신국판/
328면/
정가: 10,000원

실용영문법해설(1)



고경환 저

2006/크라운판/
478면/
정가: 1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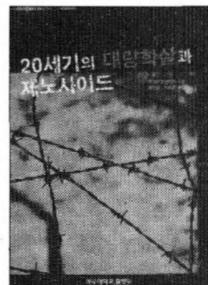
의·생명과학의 법·윤리적 이해



김창미, 손영수 공저

2006/신국판/
294면/
정가: 9,000원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벤자민 발렌티노 저음
장원석, 허호준 옮김2006/신국판/
448면/
정가: 15,000원

산수미학탐구



손오규 저

2006/증보판/
416면/
정가: 13,000원

개방화,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세계지본주의체제는 유례없이 확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사회도 이러한 세계화의 양상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제주사회가 안정적인 공동체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계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대안산업의 정착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1부 제주사회와 복지, 2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한 사회복지분야 발전계획 사례를 담아 제주사회의 위협을 극복하고 대안구축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절박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세계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자료를 쉽게 접하고 그것을 지식이나 상식으로 삼고자 한다면 영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자는 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내용들이 자기 자신의 일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회화·작문·독해 능력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 한다.

문법 사항 하나 하나를 충분히 익힘으로써 영어의 참맛을 느끼면서, 동시에 필요한 영어 활용 능력을 갖추어 나가 결국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 영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영문법의 지침서이다.

의학은 다른 생명과학분야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생명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가 직접 나서는 세계적 경쟁으로 인해 오늘날의 생명공학은 자연이나 동·식물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을 직접대상으로 하여 인간생명에 위험과 환상을 초래하는 한계적 연구를 통해 국부와 경제적 성과를 이루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책은 의·생명과학분야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장단, 줄기세포 및 유전체 연구, 인공수태술, 인공임신증정 등에 관해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윤리적 문제점들을 조망해 봄으로써 혁명한 인간적 자기이해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책은 20세기에 벌어진 대량학살의 사례들을 추적해 이론화하며 지도자들이 대량학살을 모색하는 3가지 동기를 △ 사회의 급진적 공산화 추구 △ 정권의 대규모 인종청소 정책 추구 △ 계릴라 반군을 소탕하려는 정권의 전략 추구 등을 들었다. '제노사이드'라는 정의가 지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량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저자는 대량학살을 "대규모의 비전투원(민간인)들에 대한 의도적인 학살"이라고 정의했다.

'산수를 노래한다'는 것은 소재의 다양성과 정서적 함양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조선조 시립의 산수생활에는 시기와 학문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사림이 지향하는 이상적 삶은 그 완전성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 산수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 인간이라는 철학적 대상을 그 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즉 자연과 인간의 균원, 유래 그리고 삶의 정당성과 목적 등, 가장 균원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반성적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다. 책은 저자의 총 16편의 연구논문으로 구성이 됐다. 산수문학의 기본개념에서부터 시기이론의 핵심적 문제들을 제목으로 하여 이론적 체계를 시도하였고, 시전적 해석도 거의 전무한 고전시기이론의 개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 작품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견장을 하였다.

* * * 사라져가는 도대불 * * *



100년 안 된 도대불 문화재로 지정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실태 파악 '감감'

최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등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연유산 등재에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관심 밖에서 훼손되고 있는 문화재도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대불'이다.

도대불은 전기가 보급되기 전 제주에서 마을 단위로 관리했던 등대로 밤에 조업을 나간 배를 유도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길을 밝히는 대'와 일본식 별을 '도우다 이'에서 파생됐다는 설, 높이 솟아있다고 '돛대'에서 도대불로 불려졌다는 등 여러 어원이 남아있다.

각 마을마다 원뿔·원통·사다리꼴 등 형태 또한 다양하다.

그러나 도대불은 해안도로공사, 포구공사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

보존과 개발의 갈등상황에서 도대불의 모습은 점차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3~24일 양일간 9개 도대불을 취재했다. 그 중 제주시 용담동과 제주시 신촌리의 도대불 2개는 사라져 버렸고, 애월리와 두모리의 도대불은 새로 복원된 상태였다.

없어져버린 도대불 중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도대불 자리에는 구름다리(큰물교)가 세워져 있었던다. 이 곳 마을 주민인 60대의 한 할아버지가 "구름다리가 없으면 누가 이 동네에 놀러오겠느냐"며 "도대불이 없어진 것이 아쉽기 하지만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의 도대불' 저자 이덕희 하와이 토카이대 이사는 "천재지변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인위적으로 없앤 것이라서 안타깝다"며 "옛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빈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녕리 도대불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도대불 주변에 철막을 지어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도대불을 문화재가 아닌 일상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 사이라질 뻔한 도대불을 복원시킨 경우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에 사는 50대의 김은일 씨는 아직도 그 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3년 전, 군청에서 길을 만들면서 도대불을 없앴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항의해 사라질 뻔한 도대불을 복원시켰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도대불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들의 힘으로 문화재를 살려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덕희 하와이 토카이대 이사는 "10여 년 전, 도대불 책을 내기 위해 이곳 동네 사람들을 취재했었는데 지금 와서 김은일씨의 얘기를 들으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복원된 애월읍 애월리 도대불은 원래 형태가 없어져 버리고 복원된 모습만 남아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대불이 모두 몇 개가 남아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과 담당자는 "도대불이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도대불이 문화재로 지정되기에는 아직 문화재법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시기상 100여 년이 넘어야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방치돼 있는 유산들은 도대불 뿐만이 아니다. 방시탑, 원, 불타(해녀들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곳) 등 제주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문화 유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1997년 20개도 채 안 됐던 도대불이 지금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50년이 흐른 후 도대불을 조사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 때 남아있는 도대불은 몇 개나 될까.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김화영 기자 kimhy@cheju.ac.kr

인터뷰
1

이덕희
하와이 토카이대 이사장

제주의 자연문화 소중히 다뤄져야



사용했다.

그 종 나무를 잘게 잘라 맑은
솔각, 송진, 생선의 내장을 썩혀
만든 구린지를, 복어나 상어 등
지방이 많은 생선에서 짜낸 기
름, 근대에 이르러 석유와 카바
이트 등이 사용됐다.

또 각 마을마다 운영하는 방법
도 달랐다.

당시 '불치'이라 불렸던 등대
지기는 범의 어업을 나간 어부들
의 생사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마을에서 책임
감이 강한 어른이 맡았다.

이렇게 불치하고 난 맷가로 그
날 잔인 어류 중 가장 좋은 최상
급 물고기 2~3마리 또는 돈으로
일당을 졌다고 한다.

- 도대불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주는 섬 사회다. 섬 사회에
서는 어업이 발달해있는데 그중
에서도 야간어업이 성행했다.

그렇다면 등대가 없던 시절 옛
조상들은 어떻게 포구를 찾아들
어왔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관심
을 갖기 시작했다.

- 도대불 연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도대불과 관련한 서적들이 별
로 없어 10여 년 전 도대불이 있
는 마을을 찾아 그 곳 주민들을
취재했다.

그렇게 해서 1994~1997년 모
두 17개의 도대불을 찾게 됐다.

- 도대불은 어떻게 이용되었다.

도대불은 상자·원통·원뿔·
사다리꼴 등의 형태를 변형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만
들었으며 전기가 마을에 보급되
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연료를

온고자신'의 정신없이 무조건
적인 개발로 인해 도대불과 같은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조상들의 자취인데 안내표지
하나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도대불은 제주의 문화와 제주
인의 생활을 읽어낼 수 있는 문
화재로서 아주 귀중한 자료인 것
이다.

김화영 기자 kimhy@cheju.ac.kr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도대불

2006 JLPT

일본어 능력시험

2006년 JLPT 일본어능력시험 안내

■ 시험 일 :

2006년 12월 3일(일요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제주상공회의소

(우)690-029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블럭 1롯트

☎ (064)757-2164~6

■ 접수기간 :

2006년 8월 28일(월)~9월 15일(금) 09:30~17:30

※ 단, 토·일요일 / 공휴일은 휴무, 우편접수는 9월 15일 소인까지 유효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http://jejucci.korcharm.net>
- 방문접수 : 제주상공회의소 (690-029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블럭 1롯트)

- 우편접수 : 원서교부처에서 원서를 교부 받아 작성 후 수험료(우체국소액환), 사진과 함께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제주상공회의소로 발송

■ 수험료 :

- 일반성적통지자 - 32,000원 (1, 2, 3, 4급)
- 빠른성적통지자 - 40,000원 (1, 2, 3, 4급)

■ 준비물 : 사진 1매(3×4cm)

■ 주최 :

- 동경 / 日本國際交流基金 日本國際教育支援協會
- 서울 / JLPT日本語能力試驗 서울實施委員會
- 부산 / (社)釜山韓日文化交流協會
- 제주 / 제주상공회의소

■ 협찬 : 日本語ジャーナル

인문학
커뮤니케이션

동양문고

일본어 교육의 정상

시사일본어사

